

호남사람 참칭하는 한덕수의 '광주사태' 망발 그런 한덕수와 빅텐트 치겠다는 이낙연의 배신

5·18 펴헤에 지역사회 공분
“내란 동조세력 인식 명백”
‘반이재명’ 전선도 맹폭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깎아내린 데 대한 지역사회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정지권과 오월단체 등은 일제하
한 예비후보의 발언을 내란 동조세력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망발로 규정하
고 비뚤어진 역사관에 대한 비난을 쏟
아내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또 개헌을 고리로, 한예비후보와 이른바 ‘반이재명’ 빅텐트를 구축화하고 있는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의 행보를 두고서도 “정체성을 부정하고 배신하는 행위” 등 격앙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6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을 자주 광주사태, 광주사태라고 반복하는 것을

보며 참 부끄러움이 밀려온다"고 쏘아붙였다. 강 시장은 "한 후보! 광주사태가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이랍니다. 법에 그리돼 있지요"라면서 "지난 45년 겹겹이 쌓인 기억과 아픔의 첫 겹조자 모르는 '호남사람', 그래서 더 부끄럽고 화가나네요"라며 그릇된 역사인식을 짚었다.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모자회)와 5·18 기념재단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국가에서 인정한 공식 명칭 대신 광주사태라고 부른 한 예비후보는 스스로 내란동조세력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5·18은 사태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렸던 숭고한 저항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여전히 5·18을 부정·왜곡하는 내란 동조세력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에 출마하자 뒤늦게 호남 출신을 강조하며 5·18을 정치적 무대로 삼는 이중적 태도도 보인다”며 “5·18 명칭 왜곡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오월 정신을 훼손한 것에 책임을 져

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예비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2일 5·18 민주묘지 참배가 시민단체에게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를 15차례 외친 뒤 발길을 돌렸다.

한 예비후보는 다음날인 지난 3일에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깎아내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한 예비후보의 호남사람 발언을 두고 “모멸감을 느낀다. 호남 무시 발언이다”면서 “막중한 책임을 땀겨진 후안무치한 자로 역사와 정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런 가운데 새미래 이낙연 상임고문
이 한 예비후보와 개헌의 필요성에 공
감대를 이루는 등 사실상 단일화 행보
를 구체화하자 이 고문의 행태를 성토
하는 목소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 고문은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한 예비후보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악마의 계곡을 넘어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때 호남 대망론에 불씨를 지피기도 했던 이 고문의 이 같은 행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반이재명’ 전선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 고문은 오랫동안 호남을 정치적 뿌리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연대 시도는 지역민과 민주 세력의 역사적 아픔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배신하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항하기 위한 반이재명 빅텐트는 지역 민심을 전혀 잃지 못하고 있는 처사다. 특히 그 상대로 내란 고범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 전 총리를 선택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다”고 비판했다.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이병훈 전 국회의원은 “탄핵정국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와 맥을 같이한 한덕수 총리와 연대설까지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정치 끝에 무엇이 남겠느냐”고 지적했다. **길용현 기자**

알립니다

참신한 인재를 모읍니다

[신입 및 경력 기자 모집]

전남매일이 창간36주년을 맞아 역량 있고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꿈과 열정을 안고 전남매일과 함께 당신의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꿈은 도전하고 실행하는 사람만이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기다리겠습니다.

모집부서		응시 자격 및 대상
취재기자	신입 및 경력	국내/외 4년제 대학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사진기자	0명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제출서류 |

신입기자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A4 1장 이내) 1부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1부
경력기자	- 신입 응시자 제출 서류와 동일 - 본인 작성 기사 또는 사진 3건 이상 - 경력증명서 1부

| 전형일정 |

전형방법	일 정	비 고
1차 서류접수	5월 7일 ~ 5월 23일	방문·우편·이메일 jsm7139@nate.com
2차 심층면접	추후공지	1차 합격자에 한함
합격자 발표	6월중	개별공지

| 문의처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6층 전남매일 관리국 062-720-1012

M 전남매일



옛 적십자병원 11년 만에 공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당한 시민들이 치료 받았던 광주 동구 옛 적십자병원 (5·18사적지 제11호)이 폐쇄된지 11년 만에 공개돼 6일 관람객들이 응급실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태규 기자

민주 “11일 밤까지 재판 연기 결정하라”

파기환송심 고강도 압박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
탄핵카드 등 전방위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민중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재판 기일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 밤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법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본부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며 “이미 루비관장을 건넨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고법 파기환송 재판부를 향해 “법원 권위와 법적 안정성,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재판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며 “만일 재판이 강행돼 선거가 이뤄진다면 피고인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방안은 물론, 청문회·국정조사

·특별검사(특검) 도입·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의 대책을 거론하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모든 대응 수단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고 집행자'라고 규정하며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호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면에 계속 서울=김현수 기자



현대자산운용
UNICORN ETF

UNICORN ETF는 현대자산운용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전략과 노하우를 녹여 운용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현대자산운용의 고유한 ETF 브랜드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1308호(2025.4.3.~2028.4.2.)
현대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038호(2025.3.31.~2028.3.31.)

높은 위험 ← 투자위험등급 → 낮은 위험

1 2 3 4 5 6

2등급 | 높은 위험

반도체 시장에도 봄이 오나 봄

현대UNICORN
SK하이닉스밸류체인
액티브ETF

#494220

*펀드명: 현대UNICORN SK하이닉스밸류체인 액티브 증권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펀드유형: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공모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투자위험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비교지수: FnGuide SK하이닉스밸류체인 지수 *상장일: 2024.11.28. *총 보수(연, %): 0.5(운용회사 0.445, 지정참가회사 0.02, 신탁회사 0.02, 일반사무관리회사 0.015) *환매방법: 장내 매도 / 환매 청구일(T) 기준 납입자산구성내역에 의거하여 T+2일 환매자산 수령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ETF는 자산가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운용전략 및 전망은 시장 상황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TF 거래 시 추종하는 벤치마크와의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 거래 수수료가 별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